Shakespeare의 <*Othello*>(1604)

1. 기존의 평가

소위 세익스피어의 창조적 에너지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에 쓰여진 4대 비극 중에서 가장 열등하다고 평가된 작품-----> 극의 스케일

주인공의 위상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

손수건의 비극, 이아고의 동기없는 악행(motiveless malignity), 우매한 질투의 화신, 순결한 데스데모나----> 기존의 극의 평가로서 화석화된 이해와 표현들

현대적 감각의 비극: 리어나 멕베드처럼 모호하지 않고, 타이먼처럼 알레고리컬하지도 않은 인간적인 극

극의 초점이다른 어떠한 비극보다도 사적인 이야기를 다룬, 가정의 비극(domestic tragedy) 극을 이끌어가는 동인이 다른 비극처럼 웅장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구체적인 "질투"(jealousy). 그것도 성적 질투로서 인간의 감정을 극도로 발흥시키는데 어김 없이 훌륭한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극에서는 인물과 더불어 특히 공간, 환경이 극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셰익스피어극이 가지는 윤리적 가치는 지리적, 공간적인 배경과 연관지어진다. 즉 각각의 공간이 나름대로의 에토스를 표방한다는 의미이다.

공간으로서의 베니스와 사이프러스 그리고 오셀로라는 무어흑인이 암시하는 의미---> 문화적 교환의 산물----> 이런 관계를 가장 극병하게 보여주는 동인을 이아고는 오셀로에게 일깨워줌(3막 3장)*

이아고의 암시는 오셀로와 데스데모나의 사랑이 인종과 문화, 사회적 배경의 현격한 차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야스퍼스(Karl Jaspers)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하는 기본조건을 서로 다른 두 삶의 양식간의

갈등이라고 정의한다.
오셀로의 비극은 자신의 본성과 자신이 서 있는 위치와의 부조화에서 기인되었다.

2. 베니스: 환상의 놀이터

원제목이 함축한 비극성; The Tragedy of Othello, the Moor of Venice
이미 이 속에 그의 파멸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성이 들어있다(1막 3장)*

그 자신의 환경을 오셀로는 타고난 군인으로 전쟁터를 떠나 본 적이 없고 베니스에서는 고작 9개월 체류했다고 고백한다.
특정시간과 특정공간은 항시 그 나름대로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시 되는 삶의 양식--메를로퐁티의 용어를 빌리자면, 존재양식(maniere d'etre)을 가진다.
베니스---> 국제상업도시이고, 공화적 도시시민국가로 규정
그러므로 베니스는 경제인적 사고를 지향한다. 거래와 협상이라는 상대주의적 사고를 전제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이며, 실리를 위해 현실직시의 능력과 논리, 이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가 요구되는 사회이다.(이아고적 사고의 공간)
그러므로 이아고의 오셀로에 대한 일차적인 분노는 설득력이 있다(1막 1장)*

반면 오셀로의 경우, 그는 비극의 주인공들 처럼 사고형 인물이 아니다. 그는 지성보다는 감성이 앞서고, 직관적이고 서정정적 인물오서 오히려 이아고의 지성과는 대조되는 인물이다.----. 자신의 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됨. 베니스사회의 범법자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혼동하고 있다.
군국적 사고와 공화적적 사고의 갈등: 지난 과거생활과 지금의 생활의 차이
수치문화와 죄의문화의 갈등

데스데모나 역시 사랑의 시작에 문제가 있다. 즉 상상력과 낭만성의 합작으로 이루어 진 사랑. 사회 문화적 역할과 의무를 도외시한 선택.----> 혈통의 반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일

그에게 붙여진 수사의 차이: 공작은 "용감한", 그 밖의 인물들은 "음탕한" "바바리아 말" "검은" "악마", 심지어 데스데모나의 선택이 오셀로의 마법 때문이라고 인식.
인종적 타자: 인종적인 차별의식이 존재함.

법치, 대화의 문화를 모르는 오셀로의 환경----> 법적 용어가 많이 사용됨.
용병이라는 개념, 상업적의미, 계약과 거래의 의미 전쟁장사꾼이라는 이아고의 표현.
베니스라는 공간은 오셀로 자신의 의식과 가장 동떨어진 곳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회구조로 인해 그가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 베니스는 이성과 법을 기반으로하여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미스런 일도 막아줄 수 있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베니스는 이 극에서 단지 일시적인 중요성만 가진 듯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베니스는 기본 극적 상황을 촉발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극중에서 인물들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사이프러스: 상상과의 전쟁
국가적 위기를 대비한 필요성을 담보로 한 오셀로의 존재--> 그 반대급부로 국가의 위기, 터어키의 침공시 국가적 급선무로 사이프러스로 이동함.
시아프러스로의 이동의 의미는 비록 베니스사회가 이질적 요소로 갈등의 소지가 된 반면, 여기는 전쟁터이므로 자신의 주변과 갈등을 차단하고, 무인으로서의 자신의 본 모습을 예상케 한다.
그러나 다소 극적 전개방편으로서는 미숙한 면이 그의 앞에 나타나는데 이는 운명적인 요소이다. 즉 폭풍우로 인해 자신이 사워야 할 상대가 궤멸되어버리는 상황을 맞는다.
즉 자신의 용맹을 펼쳐보일 틈도 없이 전쟁은 끝난다.----> 전쟁의 화신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했고, 이는 전쟁없는 전쟁터에서 다시한번 자신의 존재양식을 상실한 낯선 이방인으로 남아야 한다.
더구나 베니스가 보유한 최소한의 합리성이라는 보호막마저도 부재하는 장소.

안정되지 못한 사이프러스라는 사회, 게다가 적에게 노출된 섬. 여기서 오셀로는 혼자서 진실을 추구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아고의 사악성도 여기서 작동되기 시작.---> 베니스에서 이루지 못한 소란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다.
그러므로 사이프러스는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이아고와 오셀로의 전쟁터로 변함.

폭풍으로 오셀로 보다 뒤에 떠났던 이아고가 사이프러스에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도 운명적이면서 중요성을 가진다. 즉 계약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에스데모나와 캐시오가 다정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이아고에게 오셀로의 질투심을 이용하게끔 하는 전략을 제공함.(1막 3장)*

"인간은 겉과 속이 같다(3막 3장)"라고 인식하는 오셀로는 이아고를 주를 때 마다 "정직한" 이란 형용사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빈도가 많아질수록 이아고를 바라보는 오셀로의 눈은 멀어진다.

"속이기 쉬운 바보(4.1)"

캐시오의 잠꼬대를 이용한 불륜을 의심하게 만들 때, "그것은 곧 경험했음의 의미하지(3.3)" 라는 오셀로의 인식--->즉각적인 반응과 더불어 꿈이란 추산적이고 관념적인 기제를 실체와 동일시 하는 사고의 단순성.

캐시오의 복직을 건의한 이아고, 그리고 실무를 맡은 데스데모나의 집요함---> "지금은 부인이 장군이네(2.3)'---> 셰익스피어의 주인공 중 가장 생각이 모자라는 인물이며, 햄릿가는 반대되는 반 지성적 인물.

또 다른 주인공과는 달리 관객의 죄리에 남을만한 독백이 없다는 것---->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전달받을 수 없고, 관객에게 자신의 내적 성찰의 과정을 확인할 수도 없다.

데스데모나는 천상의 여자인가?----> 캐시오와의 대화장면, 이아고와의 많은 성적농담,
오셀로에게는 귀찮을 만큼 집요하게 캐시오의 복직을 구하는 점

여성은 영원히 오독을 면할 수 없는 항상 곡해되는 텍스트이다. 여성은 음란하지 않으면서 예의바를 수 없고, 사리분별이 있으면서 냉정할 수 없으며 격정적이지 않으면서 온화할 수 없다.---->극을 진행시키는 힘

이아고는 오셀로의 상상력을 점령함. 오셀로로 하여금 자신의 의도대로 상상을 하게 만듬.(3막 3장)*----> 극의 초반에 이아고가 자주 사용한 어휘; 질투(jealous), 의심(suspect, suspicions, doubt), 추측(inference), 가정(surmise)가 극의 후반에는 오셀로에게서 다시 사용됨. 상상력이 점령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그는 이아고의 지휘로 데스데모나와 상상속의 전쟁을 치르는 셈이된다.

"이제 무어놈은 내 마수에 걸려들었어(3.3)" vs. "나는 영원히 자네를 믿겠네(3. 3)"

극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아고의 대사는 길어지고, 오셀로의대사는 단문으로 일관됨---> manipulating vs. manipulated

"나는 내 상각대로 말한거야. 장군도 그럴싸하게 받아들이더군(5.2)"

"공기같은 가벼운 물건도 의심하는 자에게는 성서만큼이나 대단한 증거가 되지(3.3)"

에밀리아 역시 데스데모나에게 오셀로의 이상행동, 질투심에 대해 "저절로 자라는 괴물(3.4)"----> 손수건이라는 기표를 간통이라는 기의로 채우고 있다.

인간이 귀속한 공간은 그 나름대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활양식을 구축한다. 인간의 사고나 그 사고의 결과로 야기되는 행동도 이런 귀속공간의 규범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종적 타자로서 오셀로에게는 자신이 현재 귀속된 공간속에서 자신으 신분이나 위상에 대한 갈등의 흔적이 없다. 그리고 이질적 문화에 동화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극의 결과만 본다면, 이 극은 고귀한 흑인가 사악한 기독교인의 싸움에서 결국은 흑인의 고귀함이 패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한 인간이 고립된다는 것이며, 이 고립이 오셀로의 미그으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다.
----> "고립의 비극"

Niccolo Machiavelli의 군주론(The Prince/ Il Principe, 1532)

18장: How Princes Should Keep Faith

Be it known, then, that there are two ways of contending, on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the other by force; the first of which is proper to men, the second to beasts. But since the first method is often ineffectual, it becomes necessary to resort to the second. A Prince should, therefore, understand how to use well both the man and the beast. .....

But since a Prince should know how to use the beast's nature wisely, he ought of

beasts to choose both the lion and the fox; for the lion cannot guard himself from the toils, nor the fox from wolves. He must therefore be a fox to discern toils, and a lion to drive off wolves.

25장: What Fortune Can Effect in Human Affairs, and How She May Be Withstood

To be brief, I say that since Fortune changes and men stand fixed in their old ways, they are prosperous so long as there is congruity between them, and the reverse when there is not. Of this, however, I am well persuaded, that it is better to be impetuous than cautious. For Fortune is a woman who to be kept under must be beaten and roughly handled; and we see that she suffers herself to be more readily mastered by those who so treat her than by those who are more timid in their approaches. And always, like a woman, she favours the young, because they are less scrupulous and fiercer, and command her with greater audacity.

5막 2장: 오셀로가 침실에서 잠자고 있는 데스데모나를 살해하려는 순간의 독백

It is the cause, it is the cause, my soul,--
Let me not name it to you, you chaste stars!--
It is the cause. Yet I'll not shed her blood;
Nor scar that whiter skin of hers than snow,
And smooth as monumental alabaster.
Yet she must die, else she'll betray more men.
Put out the light, and then put out the light:

5막 2장: 오셀로가 체포되려는 순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결하기 전의 대사

Soft you; a word or two before you go.
I have done the state some service, and they know't.
No more of that. I pray you, in your letters,
When you shall these unlucky deeds relate,
Speak of me as I am; nothing extenuate,
Nor set down aught in malice: then must you speak
Of one that loved not wisely but too well;
Of one not easily jealous, but being wrought
Perplex'd in the extreme; of one whose hand,
Like the base Indian, threw a pearl away
Richer than all his tribe;